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6. 22.(화) 총 6매 (본문 2, 참고 4)					
담당 부서	해양개발과	담당 자	• 과장 구도형, 사무관 황진실, 주무관 범상섭 • ☎ (044) 200-5240, 5244, 5245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한국,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집행이사국 재선출

- 30년간 집행이사국 지위 유지 예정, 해양과학 이끄는 선도자 역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유네스코(UNESCO)* 본부에서 열린 ‘제3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총회(6. 14.~25. 비대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기구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각국의 해양 과학 연구와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해양과학 전담기구이다. 현재 150개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인 해양관측 및 연구, 해양자료 조사, 해양재난 대응 등 다양한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으로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29년간(15회 연속) 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한국인 의장(변상경 前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배출하는 등 전 세계 해양과학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을 주도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회원국 150개국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바다와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전 지구적 해양탐사 및 연구 사업이다. 기초 과학 연구로서의 해양과학을 넘어서, 연구에서 얻은 과학 지식을 기후 변화와 해양오염 등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해양수산부는 ‘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 추진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30여 명의 경쟁을 뚫고 국내 전문가(이운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를 ‘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 기획을 담당하는 집행기획위원회(EPG)*에 진출시켰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획단계의 공로를 인정받아 ‘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이 출범하는 올해 공식 후원국(UN Ocean Alliance)으로 초청받아 활동하게 되었다.

* Executive Planning Group: 전 세계 해양 과학·정책 전문가 19인(美 해양대기청(NOAA) 부청장,獨 킬 해양 연구소(GEOMAR) 물리분과장, 日 동경대 해양연구소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으로 15회 연속 선출된 것은 해양과학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의미 있는 성과이다.”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세계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제3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의 집행이사국 선거결과

	기존 집행이사국	신규 집행이사국
I 그룹(10석) (서유럽·북미)	독일(부의장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그리스,	독일(부의장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미국
II 그룹(3석) (동유럽)	러시아(부의장국), 불가리아	러시아(부의장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III 그룹(9석) (중남미)	아르헨티나(의장국), 브라질(부의장국), 칠레, 콜롬비아, 그레나다, 페루,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우루과이, 멕시코	아르헨티나(의장국), 브라질(부의장국), 칠레, 콜롬비아, 그레나다, 페루,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우루과이, 파나마
IV 그룹(9석) (아시아·태평양)	대한민국 , 인도(부의장국), 일본, 중국, 호주, 이란,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대한민국 , 인도(부의장국), 일본, 중국, 호주, 이란, 필리핀,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V 그룹(9석) (아프리카·아랍)	모로코(부의장국),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케냐, 쿠웨이트, 마다가스카르, 오만,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부의장국),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기니,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코트디부아르

참고 2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개요

□ 개요

- (성격)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정부간기구)
- (목적) 전지구적 해양과학조사를 촉진하여, 회원국의 해양환경 관리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실현, 정책결정과정 개선
- (설립시기/사무국 위치) '60년 / 프랑스 파리 UNESCO 본부
- (회원국/집행이사국) 150개국('21년 기준) / 40개국

□ 조직 및 인원

- (조직/회의) 사무국, 지역위원회(5개) / 총회(격년), 집행이사회(매년)
- (의장/사무총장) Ariel Hernan Troisi(아르헨)/Vladimir Ryabinin(러시아)



○ 의장단 현황('19.7~'21)

구분	의 장	부 의 장				
		I 서유럽·북미	II 동유럽	III 중남미	IV 아시아·태평양	V 아프리카·아랍
이름	Ariel Troisi	Monika Breuch-Moritz	Alexander Frolov	Frederico Antonio Saraiva Nogueira	Satheesh Chandra Sheno	Karim Hilmi
국가	아르헨티나	독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모로코

□ 재정

- 대부분은 UNESCO 예산으로 운영
- '11년 팔레스타인의 UNESCO 가입으로 인해 미국이 재정지원을 유보하여 IOC의 심각한 재정난이 초래
 - * 이로 인해 미국은 집행이사국 지위를 일시 상실('17~)하였으나 '21년 선거로 회복

□ 주요 해양과학 프로그램

- 과학 분야 : HAB(유해조류적조 프로그램), LME(광역해양생태계), WCRP(국제기후연구프로그램), IOCCG(국제해색위성전문가그룹)
- 해양서비스 분야 : IODE(국제해양자료 및 정보교환), Ocean Mapping(해저지형도) 등
- 응용해양학 분야 : GOOS(지구해양관측시스템), JCOMM(해양기상학위원회), DBCP(데이터부이협력패널) 등
- 기타 분야 : 능력배양프로그램, ABE-LOS(UN해양법전문가회의) 등

□ 한국의 참여현황

- (연혁)
 - 1961년 IOC 1차 총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 1993년부터 14회 연속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활동
 - 前 IOC 의장국(변상경 의장, '11~15 총 4년)으로 의장단 회의 참석
- (국내위원회) 한국해양학위원회(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 KOC)
 - (위원) 총 21명(해양수산부, 외교부, 기상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해양관련 전문가)

참고 3

제3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사진

